

지역 매 아리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마련

##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43회 임시회를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시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 '실질적 생존수령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를 통해 ▲수령교육시설 확보와 강사지원 ▲생존수령 강사 양성과 수령장 인프라 확충(공공수령장 신축) ▲생존수령 교육 시간 확대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읍의 아이들이 혹시 모를 수상안전사고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도형 의원은 민선7기 두 번째 조직개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 조직인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정전라십의 준폐어부 ▲민간위탁 가능사무의 검토와 직영할 경우 통솔범위 고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 ▲농업기술센터를 본래의 농촌지도 업무기구로 전환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 방안(시청사 신축 또는 증개축) 등 보다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2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시 한철 관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국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가치 있는 우리 마을! 같이 사는 우리 마을!"이라고 정한 이 사업은 각사다리 설화와 지역 내 산재한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가 있는 특화 골목길 조성으로 주민의 자긍심과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위해 주민들은 지난 해부터 정읍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했다.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발굴과 지역의 현황, 문제점 분석은 물론 해결방안 모색까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소규모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전북 최초 고등학생 석식 식비 지원



부안군은 전북 지역 최초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 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석식 식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권익 현 부안군수의 공약사업이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기존 중식은 무상급식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석식은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군비 2억 9000여만원을 편성해 석식 급식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만여원을 지원받게 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되며 농수산물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안군은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학교급식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사진)는 "이번 석식 식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또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구절초꽃축제의 주무대인 구절초테마공원이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 사계절 명품 휴양공간으로 탈바꿈

###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

전국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읍 구절초꽃축제의 주무대인 구절초테마공원(이하 구절초공원)이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시는 구절초공원의 계절성 한계를 극복하고 사계절 명품 휴양공간이자 정읍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계절 테마형 정원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 산림청 국비 공모사

업에 정읍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2021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 테마공원 내 국공유지에 공간별로 5개의 테마정원(구절초정원, 물결정원, 들꽃정원, 참여정원, 사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구절초정원'과 '들꽃정원'을 조성한다. 이후 '물결정원' 등 3개 정원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후반에는 '전북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아 전국적인 관광 휴양명소와 지방정원 성공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불어 2022년 이후에는 사계절 관광객을 위한 정원 프로그램과 체험 상품을 운영하고 연중 개방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세부 사업을 확정했고 현재 시설계와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사계절형 테마정원으로 변화시켜 가을철에만 관광객이 집중됐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정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열네 해째를 맞는 정읍 구절초꽃축제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방장산 권역 공동 발전 위한 '첫 걸음'

### 고창군·정읍시·장성군 모여 정책협의회 열어

호남의 삼산산 중 하나인 방장산 권역 3개 시·군이 모여 공동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뒀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27일) 오후 고인돌박물관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유진섭 정읍시장, 유두석 장성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방장산권역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호남의 명산인 방장산을 공유하고 있는 정읍시와 장성군, 고창군이 함께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고창군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비롯해 도계-장성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고창군은 이웃이 울려해 함께 잘 사는 '관광산업'을 제안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의 겹치는 축제 기간에 관광객이 3개 시군을 두루 방문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사업이다.

장성군은 삼남대로(전남해남~서울) 구간 중 갈매길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정읍시는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과 함께 먼저 지정된 고창 고인돌과 고창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해 '유네스코 공동미케팅'을 추진을 제안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 콘서트 성료

정읍시가 '2019~20 정읍방문의 해' 기념 '정읍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8일 내장산국립공원 내에서 열린 콘서트는 통기타 연주와 어우러진 환상적인 라이브로 5천여명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번 공연에는 해바라기 '내마음의 보석상자', 강은철 '삼포로 가는 길', 신계형 '가을사랑', 유심초 '사랑이여', 백미현 '난바람 난눈물', 조덕배 '꿈에',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서재이 '거짓말이라도해봐', 최성수 '동행' 등 총 27곡을 선사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가수 신계형, 강은철, 이진관, 유심초에게 '2019~20 정읍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패를 증정하는 위촉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서는 힐링 걷기와 '정읍방문의 해' 성공을 부르는 기념 부채 증정, 내장산국립공원의 야간단풍 식재 체험 등의 이벤트도 다채롭게 선보였다.

이밖에도 아름다운 내장산의 봄을 KBS 방송제작진 정읍 두루두루 둘러보기 코스, CJ헬로 불매토크 정읍시장 편 등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또 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조선왕조실록을 위한외관 당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전주사고에서 내장산으로 이관했던 태인의 송홍록과 안의의 선비정신을 기리는 재현 행사 등을 통해 내장산 사계절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9~20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이 6월 14일 서울 용산역에서 개최되며, 홍보대사 위촉식, 관광공의 다짐, 방문의 해 선포 및 세레머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도시재생 시민 포럼 개최... 자유 토론·의견 공유

'2019 정읍시 도시재생 시민 포럼'이 31일 오후 2시 정읍시립중앙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사회한 원도심을 살리고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포럼은 올해 세 번째를 맞고 있다.

이번 포럼은 '디자인, 도시의 품격을 말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의 좌장은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맡았으며,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첫 번째로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장 김선아 대표의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6년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한광야 동국대학교 교수의 '서울 해방촌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례',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의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